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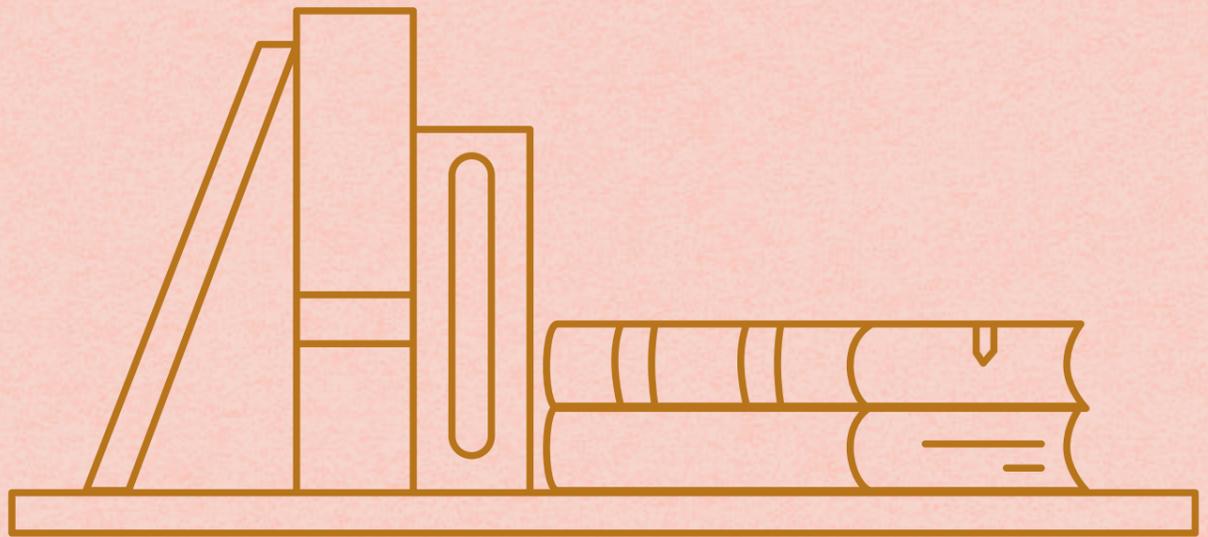
작

모

음

집

2021년 서초구 어린이
독서 감상문·감상화 공모전



서초 어린이, 평등을 읽다

“ 새싹부문(감상화) ”

구분	수상자	작품명
대상	신하윤 (원촌초 2학년 3반)	우리는 평등해
최우수상	남연재 (반원초 3학년 4반)	엄마에게도 휴식이 필요해!
우수상	박예린 (방현초 3학년 2반)	슬기로운 뜨개질 친구들
우수상	유지수 (원촌초 2학년 2반)	농구는 나도 잘 해!
우수상	윤주아 (계성초 2학년 온유반)	나도 미래 과학자!
장려상	김리원 (잠원초 3학년 2반)	헌터걸이 되고 싶어!
장려상	김민아 (이수초 2학년 2반)	화목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마을버스
장려상	김채원 (서래초 1학년 7반)	달을 쳐다보는 외계인들과 지구인
장려상	오다연 (서원초 2학년 6반)	푸실이와 도서실
장려상	오재연 (서원초 2학년 3반)	생쥐씨들도 타세요!

“ 열매부문(감상문) ”

구분	수상자	작품명
대상	김아윤 (잠원초 5학년 3반)	색안경
최우수상	홍아라 (양재초 4학년 3반)	보이지 않는 담을 넘어서
우수상	신채원 (서래초 6학년 5반)	내 인생의 5번 레인을 찾아서
우수상	최 훈 (언남초 5학년 3반)	너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야, 너는 너일 뿐이야.
우수상	표규선 (서원초 5학년 7반)	진짜 축구왕은 이채연
장려상	김영채 (반포초 5학년 2반)	남녀, 모두 같은 사람
장려상	배하은 (서래초 6학년 1반)	평등이란 같은 무게일까?
장려상	이다은 (서이초 5학년 5반)	차별에 맞선 여군자 푸실이
장려상	최시현 (방일초 5학년 3반)	백조의 발길질
장려상	한소혜 (반원초 6학년 6반)	'잘못된 미'를 이용하지 마세요.



새싹부문(감상화) 최우수상

엄마에게도 휴식이 필요해!

남연재 반원초등학교 3학년 4반



이 그림은 엄마가 파업을 해서 생겨난 빈자리들을 가족들이 착실히 해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엄마도, 아빠도 다 같이 일해야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모든 일을 떠맡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새싹부문(감상화) 우수상

슬기로운 뜨개질 친구들

박예린 방현초등학교 3학년 2반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나뉘져 있는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자기만의 성격과 모습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피의 엄마가 “라피, 좋아하는게 다른 애들이랑 다를 뿐이지 엄마 아빠는 네가 아주 자랑스럽단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다.

내가 그린 작품에서 라피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뜨개질을 좋아하게 되어서 라피와 함께 다같이 재미있게 뜨개질을 한다.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다. 목도리의 무지개 색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새싹부문(감상화) 우수상

농구는 나도 잘 해!

유지수 원촌초등학교 2학년 2반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가지 못하는데 집 근처 운동장을 지나갈 때마다 남자 아이들이 열심히 축구하는 모습이 보여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2학년이 되어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남자 아이들의 재빠른 움직임에 공을 차 볼 기회도 없어 생각했던 것 만큼 축구가 재미있지 않아 '역시 이런 건 남자아이들만 하는 운동인가 봐' 라고 투덜대던 어느 날 밤, 제가 축구공이 아닌 농구공을 손에 들고 멋지게슛을 넣어 우리팀이 남자팀을 이기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축구왕 이채연" 에서 여자축구부 경기를 보며 응원하던 남자축구부 아이들 모습이 생각나서 저도 그날 밤 제 꿈을 그려보았습니다.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자라서 못하고 남자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새싹부문(감상화) 우수상

나도 미래 과학자!

윤주아 계성초등학교 2학년 온유반



저도 마거릿처럼 과학자가 꿈이에요. 제가 만든 로봇들이 우주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제가 만든 로봇들 그리고 동생 준호와 함께 멋진 행성을 만들고 함께 지내면 어떨지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리니 재미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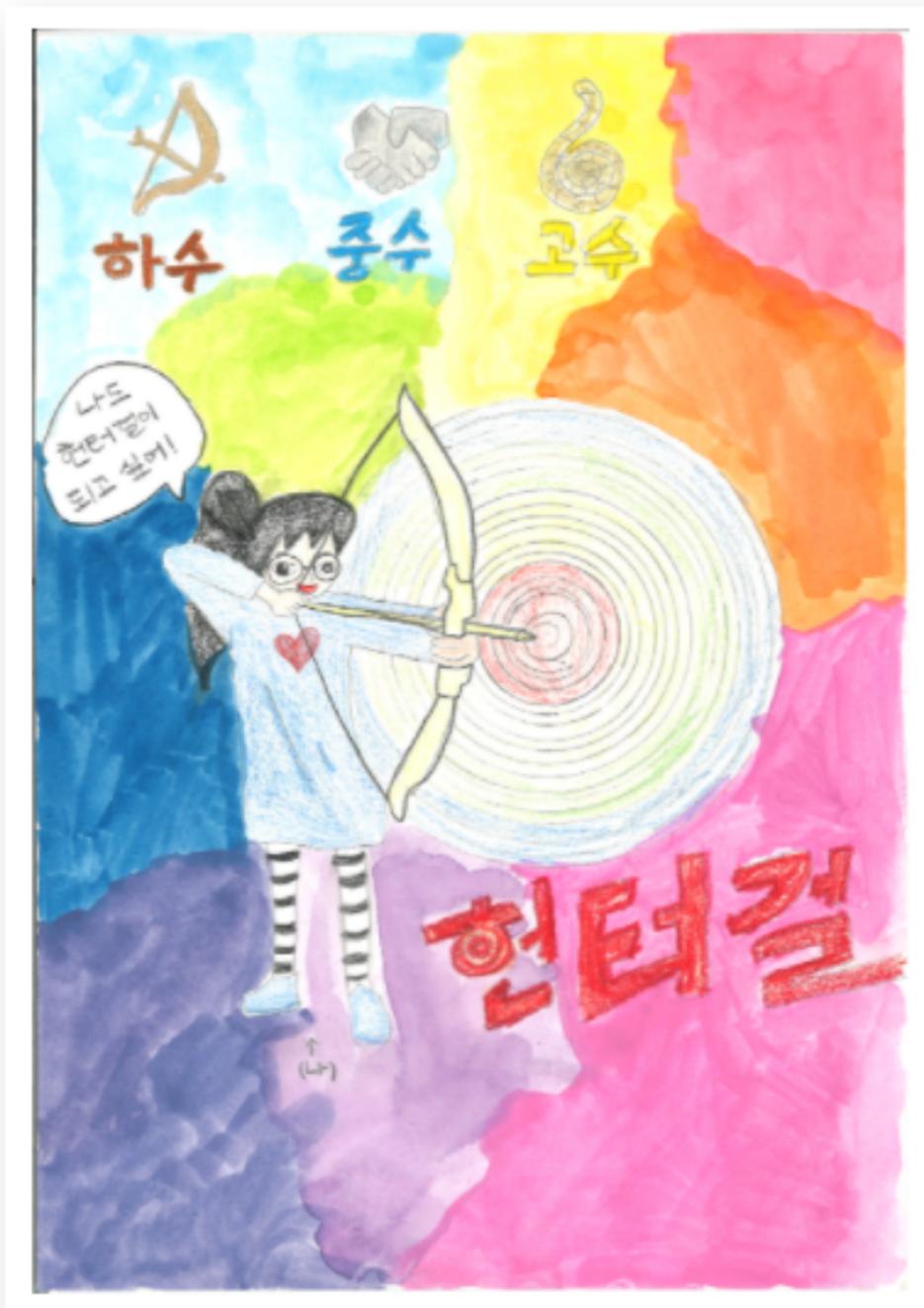
마거릿은 뭐든지 한번 해보고 열심히 했다는 게 멋졌어요. 저도 언젠가 꼭! 마거릿처럼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마거릿이 무엇이든 노력해서 끝까지 해냈던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새싹부문(감상화) 장려상

헌터겔이 되고 싶어!

김리원 잠원초등학교 3학년 2반



<헌터겔>을 읽고 나도 헌터겔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주인공인 강지가 부러웠고, 또한 헌터겔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외모에만 신경을 써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다. 나는 <헌터겔>을 읽으며 기쁨, 억울함, 놀람,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고, '내가 헌터겔이 된다면 어떤 유형의 헌터일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헌터일까?'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헌터겔이 되고 싶어!>는 연필, 색연필, 물감을 사용해서 헌터의 배지들과 등급, 그리고 내가 헌터겔이 되어 강지처럼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새싹부문(감상화) 장려상

화목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마을버스

김민아 이수초등학교 2학년 2반



목기린씨가 마을버스를 타지 못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힘들게 걸어야 했는데 목기린씨 말고 다른 주민들은 목기린씨의 힘든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안타까웠다. 목기린씨는 자신이 힘든 상황을 편지로 꾸준히 전달하고 '마을버스를 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목기린씨를 도와주려 노력한 꾸리처럼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목기린씨는 나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 화목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버스를 설계했을 거라 생각했다. 버스 안에서 바람을 타는 목기린씨 그림을 그렸다.



새싹부문(감상화) 장려상

달을 쳐다보는 외계인들과 지구인

김채원 서래초등학교 1학년 7반



마거릿과 내가 친구가 되어 달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 지구인과 여러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인들이 망원경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우리는 그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왜냐하면 외계인들이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걸 알았다면 폭풍과 회오리바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태양계 멀리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이 자신들이 뭘 하는지 아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외계인들은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안 보이도록 숨겨 놓았다.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이 허락 없이 자기들 행성에 놀러 와서 지구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화성에 있는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싫어한다. 그래서 다른 행성을 탐험할 때는 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특히 젤리)을 가지고 가야 한다.



새싹부문(감상화) 장려상

푸실이와 도서관

오다연 서원초등학교 2학년 6반



푸실이는 책을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읽지 못하게 하고 밥도 제일 조금 먹어야해서 불쌍해요. 아기를 죽게 내버려두려고 한 푸실이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대감마님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푸실이가 시간문을 발견해서 해님과 같이 2021년 서원초등학교로 오게되면 어떨지 그려봤습니다. 푸실이는 도서관에 제일 먼저 가서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 행복할 거예요.

저는 푸실이에게 한글과 구구단도 더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옛날이 아니라 현재에 태어나서 예쁜 옷도 입고, 반찬도 많고, 재미있는 만화책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새싹부문(감상화) 장려상

생쥐씨들도 타세요!

오재연 서원초등학교 2학년 3반



이 책을 읽으니 목기린씨가 탈 수 있는 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웃들의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위 그림은 생쥐가족이 10번지에 이사왔다고 상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생쥐들이 매일 공원에서 뛰어노는데 버스에 타기엔 작아서 다른 동물들에게 밟힐까봐 걱정했어요.

고슴도치 관장님이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져서 마을 주민들과 또 대화를 하여 결국 "목기린씨, 타세요!"버스 위에 "생쥐 씨들, 타세요!"를 거대 캡슐로 만들어 철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쥐들도 버스를 안전하게 탄 것이예요.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열매부문(감상문) 대상

색 안경

김아윤 잠원초등학교 5학년 3반

이 책에선 주인공으로 푸실이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푸실이는 효진 아가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한 신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여동생을 구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푸실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음에 답을 합니다.

“어찌 살것입니까?”

어찌 살것이나...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고, 그리고 이 물음에 답하려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푸실이는 답을 넘었습니다. 편견과 차별로 꽉 막혀있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푸실이는 답을 넘으며 살 것입니다. 그녀는 더 평등한 세상으로, 차별 없는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답을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물음에 대답하실 건가요?

「어찌 살 것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차별의 벽, 그러니까 문도 있고 담은 사라졌으니 그냥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이든 노약자,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눈살을 찌뿌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노약자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떨까요? 평범한 사람이 지나갈 때의 눈빛과 외국인이 지나갈 때의 눈빛은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이 꼭 차별적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나 또는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인간은 저도 모르게 쳐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신분제도도 없어지고, 또 외국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감소했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경계하고, 차별합니다. 그러한 풍습이나 관습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느낄 것입니다.

이 의문의 감정은 바로 경계심과 두려움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색안경’에 있습니다. 색안경은 사람들이 세상을 차별적으로 보게 하는 색들이 칠해진 안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색안경의 이름은 ‘형광색 색안경’입니다. 때로는 큰 싸움을 부르기도 하는 이 안경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외부인이나 외국인을 보면 발동합니다. 보통 형광색은 튀기 마련입니다. 그 원리와 똑같이 평소에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자신이나 주변 사람과 조금이라도 생김새 출신 등등의 차이점을 보면 그 사람을 튀게, 그러니까 형광색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 형광색 색안경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냥 안경’입니다. 그냥 ‘평범한’ 안경. 안경집에 가보면 도수를 맞출 수 있는 맑고 투명한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사물을 튀게 해 보이거나 그런 특수효과는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밑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보게 해 줍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이들의 색안경은 여전히 선명한 형광 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안경을 쓴 이들은 어떨까요? 우선, 그들은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위가 높거나 세운 공이 많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자신과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똑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눈높이가 바로 이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저도 제 색안경이 완전하게 벗겨졌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색안경을 쓰고 외국인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얼른 색안경을 바꿔 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편견과 차별을 뿌리째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까지나 우리의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색안경의 형광색 컬러를 물로 씻어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아주 느린 거북이걸음으로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걸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성큼성큼 큰 걸음이 될 것이고 이런 큰 걸음이 모이고 모여서 힘찬 달리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형광색깔이 서서히 씻겨 나가길, 그리고 사람들이 푸실이처럼 담을 넘기를 바라며, 서초구의 한 동네에서 김아윤이 이 글을 씁니다.



열매부문(감상문) 최우수상

보이지 않는 담을 넘어서

홍아라 양재초등학교 4학년 3반

“너는 어찌 살 것이냐.”

책 속의 여군자가 물었다. 언문도 모르는 푸실이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푸실이네 가족은 푸실이, 귀손이, 푸실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기다. 푸실이 어머니는 동생인 귀손이가 아팠을 때 대감마님이 약값을 치러 주는 대신 대감마님 손자 한준 도련님의 유모가 되었다. 그래서 푸실이는 이제 젖을 줄 어미가 없는 동생 아기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푸실이가 살았던 옛날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많았던 것 같다.

첫째,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다. 효진 아씨는 대감마님의 손녀인데, 대감마님께서 는 효진 아씨가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고, 집 안에서 양전히 수놓는 것을 원했다. 그래서 효진 아씨는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다. 푸실이네 집에서도 언제나 아들인 귀손이가 먼저였다. 제대로 된 밥도 남자인 아버지와 귀손이가 먼저였고, 젖도 아기보다 귀손이가 먼저였다.

둘째, 신분을 차별했다. 푸실이는 길에서 주운 책을 꼭 읽고 싶었다. 그래서 돌금 이에게 글을 배웠다. 하지만 푸실이 아버지는 그게 뭘 소용이 있냐며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그리고 푸실이는 아기를 살리려면 꼭 어머니를 만나야 하는데 신분이 천하다고 함부로 대감마님댁에도 못 들어가고, 대감마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다.

셋째,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대감마님은 자기가 약값을 냈으니 꼭 한준 도련님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고 했다. 아기는 죽든 말든 상관 안하고 말이다. 그리고 아픈 아기가 왔을 때도 인정을 베풀지 않고 화를 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느껴졌지만, 죽어가는 아기에게 그러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았다.

요즘도 사람들이 가진 편견은 많다. “여자니까 이걸 안 돼.,” “남자인데 이것도 못 해?”같은 이야기도 듣게 된다. 나는 키가 작다. 나도 키가 크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나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게 “넌 키가 작아서 안 돼”와 같은 말을 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이다.

책을 읽으며 푸실이가 겪은 막힌 담에 마음이 아팠다. 푸실이는 여군자가 말했던 “너는 어찌 살 것이냐?”라는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 “문으로 갈 수 없으면 담을 넘자”라는 답을 찾아냈다.

이제 나도 그 답을 찾아봐야겠다.

“너는 어찌 살 것이냐?”

여군자가 나에게 물었다.



열매부문(감상문) 우수상

너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야, 너는 너일 뿐이야.

최 훈 언남초등학교 5학년 3반

나만의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에 세상이 등을 돌리면 어떤 느낌일까? 나라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다. 그냥 남들과 조금 달랐을 뿐인 줄리도 같은 느낌일 것이다.

줄리는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채로 책을 읽고, 목욕하기를 싫어하고, 거칠게 말하고, 머리를 빗지 않고 다니는 여자아이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줄리에게 왈가닥, 천방지축, 말괄량이, 선머슴 같은 녀석이라고 한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줄리를 못마땅해한다. 사람들은 줄리가 다른 여자아이처럼 조용하고 양전하고 단정한 모습일 때만 사랑을 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줄리는 그림자에 남자아이가 나타난 것을 발견한다. 줄리는 자신이 남들과 달라지니 당황스럽고 두렵다. 갈등이 심해진 줄리는 집 밖으로 나간다. 집 밖으로 나온 줄리는 땅 속으로 숨어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한다. 그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남자아이를 만나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다울 수 있고,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다울 수 있다는 우리다울 권리, 나다울 권리에 대해 얘기하고, 자신이 그 누구도 아닌 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나다울 권리란 무엇일까? 나는 나다울 권리를 남자니까, 여자니까 갖는 권리가 아니라, 나니까 갖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로 서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는 서로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르다고 부끄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나다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평범하다, 다르다'는 모두 나다울 권리이므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다.

내가 3학년 때 우리 반에 뜨개질을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친구는 매일 학교에 뜨개질실을 가져와 쉬는 시간에 뜨개질을 하곤 했다. 성격이 조용하고 친절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뜨개질 방과 후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 혼자 쉬는 시간에 연습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친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친구는 항상 '그게 어때?'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점점 많은 학생이 그 친구의 뜨개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배워보려고도 했다. 그 뒤 그 친구는 뜨개질을 잘 하기로 우리 반에서 유명해졌다. 이처럼 편견을 깨뜨리고 나다울 권리를 인정해 주면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차 있다. 직원 채용, 장교 모집 시 성차별, 학력에 따른 차별 등 세상은 많은 편견과 차별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3학년 때 친구와는 다르게 세상에는 많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거나 견뎌내지 못하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다. 줄리와 같이 남들과 조금 다르면 적은 사랑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 말이다. 자신도 사랑을 받고 싶으니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자신다움을 잃게 된다. 남자, 여자라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평등, 나다울 권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열매부문(감상문) 우수상

내 인생의 5번 레인을 찾아서

신채원 서래초등학교 6학년 5반

'5번 레인' 책 제목을 보자마자 수영장의 락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행지 개울가에서 바다까지 수영을 하러 돌아다녔고, 1학년 때부터 수영을 틈틈이 배우기 시작했다. 막 접영을 제대로 배우려던 찰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는 커녕 수영장의 락스 냄새 한 번 못 맡아보았다. 그러던중 도서관에서 '5번 레인'이라는 수영 관련 책 제목이 보이자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책을 빌려버리고 말았다. 책 표지에 그려진 수영장 물이 빨간 수영모를 쓴 아이 사이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내가 책 표지를 빨리 들춰보고 싶게끔 만들었다.

책 표지를 들추자마자 든 생각은 '멋지다'였다. 처음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나루가 수영 선수로 활동하기 때문이었다. 마치 아름답게 춤추는 발레리나를 보고 우리가 멋지다고 하듯이, 수영 선수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 공부만 하는 나에게는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책을 덮는 순간,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뀌었다. 나루는 목표가 있었다. 꿈이 확고했다. 그래서 그렇게 멋져 보였던 것이다. 수영이라는 운동이 주인공 나루에게는 자신의 삶과 같은 것이었고, 하고 싶은 것이었고, 목표였고, 성장의 계기였다.

나는 나루처럼 간절한 꿈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없었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확고한 꿈이 있어본 적도 없었을뿐더러, 꿈에 대한 생각은 학원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마음 한구석에 접혀있게 되었다. 학원에 치여 꿈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나에게 이 책은 정말로 마음에 다가오는 책이 되었다. 단순히 주인공들의 완벽한 삶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진짜 초등학교 6학년의 삶을 그려냈기 때문이었다.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며 나루가 라이벌 초희에게 갖고 있는 감정, 저지른 잘못된 행동,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까지도 담아냈기에 내가 나루를 더 멋지다고 느낀 것이었다. 꿈과 목표를 갖고 있는 나루가 고민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터치패드에 닿는 모습은 내게 감동을 주었다. 꿈과 목표가 있기에 그 목표를 찾아가며 마침내 자신의 터치패드에 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나도 나만의 터치패드를 만들고, 내 터치패드에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루가 스스로 수영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보고, 친구들과, 그리고 나 자신과 갈등을 겪으며 터치패드에 닿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나루의 모습에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길 바란다.

그럼 내 터치패드는 무엇이 되어야할지,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내 터치패드는 나루처럼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나루가 결국 초희에 대한 과도한 라이벌 의식으로 인해 초희의 행운의 부적이라던 수영복을 훔쳤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 그런 행동을 하기에 이르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난 내 터치패드를 무엇으로 꾸며 가야할까?

나는 약간의 고민 끝에, 내 터치패드를 오롯이 나로만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터치패드는 다른 사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내면으로 채우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생각하던 찰나, 나는 내 터치패드를 꾸미는데 도움을 줄 한 인물을 또 만났다. 바로 조나단.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갈매기 조나단은 여느 갈매기들과는 달랐다. 여느 갈매기들이 비행보다 먹이를 중요시 했다면, 조나단은 먹이보다 비행을 중요시했다. 조나단은 자신이 좋아하고, 성취하고 싶은 터치패드를 ‘비행’으로 채웠다. 조나단은 갈매기들의 비난에도, 다르다고 추방해버린 족장 갈매기에게도 굴하지 않고 비행을 거듭했고, 비행을 다른 갈매기들에게 가르치며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내 터치패드를 꾸미기 위한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나루와 조나단을 떠올린다. 성장해가며 자신의 터치패드를 향해 나아가는 나루와 세상의 기준에 날 맞추지 않고 나만의 터치패드를 가꾼 조나단. 나도 이들과 나만의 터치패드가 있는,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그러려면 난 뭘 잘하는 걸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흥미를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뭘까? 와 같은 질문을 들여다 봐야한다.

나는 아직 단 하나의 질문도, 단 하나의 빈칸도 채우질 못했다.

하지만 그 칸이 아직 빈 칸이기에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내 꿈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기에. 그리고 나는 아직 선택에 기로에 놓인 6학년이기에. 아직 가능성이 많기에.



열매부문(감상문) 우수상

진짜 축구왕은 이채연

표규선 서원초등학교 5학년 7반

3학년 때부터 나는 운동 교실에 다니고 있다. 친구가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해보니깐 친구들과 함께하니 재미있어서 계속 다니게 되었다.

대부분 남자 애들이지만 여자 애들도 조금 있었다. 예전에 운동 교실 누나들과 농구와 피구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 실력 차이가 많이 났다. 누나들이 우리보다 키도 더 크고 운동도 먼저 시작해서 그런지 실력이 더 좋았다. 나는 4살 때부터 9살까지 캐나다에 살았었는데 그때 언제나 우리 누나와 같이 운동을 했었다. 농구, 축구, 스케이트, 체조 등등 함께 배우고, 함께 했었고 그곳에서는 남자, 여자아이들이 함께 운동했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와서도 여자아이들과 운동하는 것이 크게 낯설지 않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와서 계속 축구, 농구 학원에 다니는데 누나는 이곳에 와서 사실 하고 있는 운동이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축구, 농구 등은 남자 애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인공 이채연의 동생 이채윤이 '누나가 축구를 어떻게 해?'라고 말해서 조금 놀랐다. 마치 누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우리 누나가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나는 응원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누나가 옛날부터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력은 어차피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다. 이채연도 축구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계속 꾸준히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포기하지 않는 이채연이 진짜 축구왕이다. 아무도 이채연을 응원해주지 않는 것이 이상했지만 나는 이런 책이 더 좋다. 처음부터 축구를 잘하는 이채연보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이채연을 상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채연이 어느 누구보다 축구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열매부문(감상문) 장려상

남녀, 모두 같은 사람

김영채 반포초등학교 5학년 2반

우리 친할아버지 댁은 종갓집이다. 그래서인지 남자인 나를 여자인 내 동생보다 더 좋아해 주신다. 처음에는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평등'이라는 것을 배운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정이 조금은 불공평하고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지 평등에 대해 부쩍 관심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평등에 관한 책도 많이 읽게 되었다. 그 중 평등에 관한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 바로 '담을 넘은 아이' 이었다.

이 책은 자신의 아픈 아들을 위해 다른 아이의 젖 유모가 되어 자신의 딸아이는 죽여야 하는 푸실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자라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능력을 펼칠 수 없었던 효진 아가씨의 어머니의 책을 발견한 푸실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아직도 고민한다. '왜 여자만?' '남자는 왜 여자보다 중요해?' 여자도 가족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남자와 성별만 빼고는 다를 게 없는 중요한 '사람' 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가 더 고귀하다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 만약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고 여자만 중요하다고 하면 남자들도 똑같이 말할 것이다. '왜?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편견 때문에 책에도 나왔듯이 남자 아이를 살리려고 여자 아이를 희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은 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여자를 비하하고 무시하며 직장에서는 여자를 뽑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등과 같은 말을 습관처럼 말하며 여자들을 마치 집안일을 하는 청소, 설거지, 밥을 해주는 로봇같이 생각하면서 차별한다. 우리도 매일 "편견? 그런 거 나한테는 없어" 라고 하면서도 밖에서는 차별을 하며 편견을 갖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책을 읽고 여자라고, 남자라고 '누구를 위해 너는 죽어도 돼' 같이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옛날의 모습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며 화도 나고,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다른 아이를 하느라 보내야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했다. 나는 다시 이런 편견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존재의 귀중함을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열매부문(감상문) 장려상

평등이란 같은 무게일까?

배하은 서래초등학교 6학년 1반

평등이란 같은 무게일까?

줄리의 그림자라는 책에 표지는 신기할 만큼 새로웠다 여자아이가 앉아있고 서있을 때 남자아이의 모습인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눈길을 끌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어른다움 모두 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굴레일 뿐이다. <줄리의 그림자>는 이것을 지적한다. 줄리의 부모님께서서는 줄리에게 여자다움을 강조하여 틀에 맞게 키운다. 우리모두 이 틀에 맞춰져 있을지도 모른다. 어른들께서 한번쯤 남자아이에게 남자는 씩씩 해야지 울면 안돼 또는 여자아이는 양전해야지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편견을 가지게 된다.

줄리의 엄마가 줄리에게 "다른 여자 아이들처럼 굴 수는 없어? 라고 묻자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난 줄리라고요!" 라고 줄리가 이야기 한다. 줄리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여자이지만 남자 다울 수도 있고 남자이지만 여자 다울 수도 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수만은 없는 것이다. 줄리는 여자다운 옷을 입으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줄리는 어쩔 수 없이 따른다. 부모님은 만족해 하시지만 줄리는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줄리의 얼굴은 행복함에서 점점 무표정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연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이 상처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

줄리의 그림자는 남자 그림자이다. 어찌 보면 줄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놓은 것이다. 줄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 자신이 정말 남자가 될까 봐 두려워 떼어 놓으려고 한다. 줄리는 무서워서 부모님께 얘기해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 남자 그림자는 줄리를 쫓아 다닌다. 줄리의 본래의 모습이 다시 줄리에게 되돌아 가는 것 같다.

사람들은 한번쯤 남의 시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나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로 다녀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다. 나의 평등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다. 달리기 선에서 걷는 사람과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기어다니는 아기가 같은 출발선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이러한 평등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줄리는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때 여자아이 같이 생긴 남자아이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된다. 줄리는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다. "나에겐 나 다울 권리가 있어 그럴 권리가." 그리고 나서 줄리의 그림자는 온전히 줄리의 것이 된다.

줄리의 그림자를 읽고 다시한번 평등이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평등에 정의는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것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매부문(감상문) 장려상

차별에 맞선 여군자 푸실이

이다은 서이초등학교 5학년 5반

'470만 태아들이 사라진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라는 기사제목을 보았다. 남아 선호가 강한 12개국에서 10년간 여아의 태아가 사라진다는 기사였는데 2021년 지금에도 이런 기사를 보게되다니 너무 놀라웠다.

'담을 넘은 아이'의 책에는 조선 시대 가난한 집에 사는 맏딸 푸실이 나온다. 푸실에게는 동생 두명이 있는데 7살 남동생 귀손이와 이름도 없는 6개월 여자 동생 아기이다. 귀손이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다. 귀손이는 어렸을 때 죽을 뻔했을 정도로 아팠다는 이유로 동생 아기의 젖을 뺏어 먹는다. 귀손이의 이름은 귀한 자식이라는 뜻이다. 그에 비해 딸 푸실이는 풀밭에서 낳았다고 푸실이다. 막내 동생은 이름이 없어 아기라고 불린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대가 배경인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 곳곳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푸실이 엄마 젖을 먹지 못해 다 죽어가는 동생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유모로 있는 양반 집으로 갔는데 대감은 동생 아기가 천해서 자신의 손주와 같은 젖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 같은 아기인데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또 대감은 효진 아씨에게도 여자라는 이유로 수를 놓으면서 집에만 있게 하였다. 글쓰기를 잘했던 효진 아씨 엄마는 여자라는 이유로 썼던 책을 모두 불태워야했다. 조선 시대에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난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다. 왜냐하면 몇백년 전만 해도 성별과 신분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 시대에도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았을 텐데 남녀 차별로 여성 인재들이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것이 날 더 가슴 아프게 만든다. 차별을 당하지만 그 차별이 당연하다고 느껴져 반박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래도 주인공 푸실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차별에 맞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픈 아기를 데리고 양반집에 갈 정도로 용기있었고 차별하는 대감에게도 군자는 단지 '덕과 학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약한 것을 보아 넘기지 않는 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다.

주인공 푸실이는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아이인 것 같다. 부모님이 푸실이가 책 읽는 것을 반대하고 혼냈음에도 주운 책을 귀하게 여기고 글씨를 익혀서 책내용을 모두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리고 부모님이 버린 동생 아기를 잘 보살폈다. 내가 푸실이였다면 왜 나에게 모든 힘든 일을 떠맡겼냐며 울분을 토하고 따졌을 것 같은데 푸실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감동받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책의 끝부분에 푸실이가 아기를 안고 양반집에서 나와 효진 아씨와 선비와 같이 있던 장면이다. 푸실이가 이름이 없던 아기한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볼 수 없는 해님'같은 아이로 태어나라며 해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또 사람값 똑같은 곳에서 태어나라고 하는 장면을 읽으며 눈물이 날 뻔 했다.

이 책은 푸실이가 아기를 안고 심의원에게 달려가며 이야기가 끝나는데 나는 그 이후를 상상해 보았다. 푸실이는 불쌍하고 약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여군자가 되어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 푸실이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웠으니까 말이다. 효진아씨에게 말한 것처럼 문이 막혔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맞서 싸운 것이다.

책의 끝에 푸실이는 여군자전에서 본 '어찌 살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세상에 던진다.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냐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한 것 같다. 난 당당히 살아갈 것이고 내 뜻이 맞다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전진할 것이다.

나도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어찌 살 것입니까?'



열매부문(감상문) 장려상

백조의 발길질

최시현 방일초등학교 5학년 3반

코로나19로 수영장에 가지 못하는 동안 두 번의 여름이 지났다. 수영장의 소독약 냄새와 침방이는 물소리가 그리웠던 나는 시원한 표지에 이끌려 이 책을 집어 들었다. 자유롭게 맑은 물을 헤쳐 나가는 소녀의 모습이 무척 부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책 속의 이야기는 의외로 뜨겁고 숨 막히는 것이었다.

강나루는 한강초등학교 수영부 에이스다. 수영에 대한 열정도 누구 못지않고, 응원하고 믿어주는 든든한 가족들도 있다. 하지만 든든한 롤모델이었던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고, 언제부터인가 라이벌 김초희가 자신을 앞지르자 나루의 마음속은 지옥이 되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는 나루처럼 더욱더 수영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나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나면 금방 싫증을 내는 편이다.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쉽게 그만 두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새벽 훈련이나 개인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면서 수영장 100바퀴를 더 수영하는 나루가 대단해보였다. 하지만 1등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초희의 수영복을 훔치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꾼 언니를 배신자 취급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루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가득 채우던 수영이 어쩌다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는 독이 되어버린 건지 속상하고 안쓰러웠다. 나는 나루의 이런 모습이 나루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과정의 성실함을 칭찬 받는 건 결과가 좋을 때에야 얻을 수 있는 기회일 때가 많다. 주위의 이런 태도들이 우리를 결과에 집착하게 만든 게 아닐까?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나루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라이벌을 이기는 것보다, 큰 수영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수도 있다. 이 힘든 일을 해낼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네가 네 편이 아닐 때도 너의 편'이라고 말해주는 진짜 우정과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덮고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처음에는 수영의 진짜 즐거움을 깨닫고 과정의 소중함을 알게 된 나루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루가 힘들 때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나루의 친구들도 모두 같은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루의 손을 잡아준 초희도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나루가 변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모든 레인에 선 모두가 주인공이다.

테이크 유어 마크! 주인공들이 날아오를 시간이다.



열매부문(감상문) 장려상

'잘못된 미'를 이용하지 마세요

한소혜 반원초등학교 6학년 6반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로 2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를 모두 읽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제목이 유치해 보여서 읽고 싶진 않았는데 읽다 보니 꼭 빠지게 되었다. 1권은 헛터걸이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로 학급 친구들이 거울여신을 통해 외적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현혹하여 돈을 버는 사기꾼을 혼내주는 이야기다. 나는 아름다움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울여신을 보고 사람들이 잘못된 아름다움을 악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두들 말하지만 아름다움은 정해지지 않았다. 누구를 닮았다고, 콧대가 높다고,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은 비슷한 답을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아름다움을 더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름다움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중 그 말이 100% 진심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티비에 나오는 얼굴, 몸매, 이목구비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니까.

미를 이용하지 말아보자. 배역에 맞는 얼굴, 착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올 것이다. 그렇다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어쩌면, 잘못된 미를 이용하지 않으면 악플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아이돌들의 학폭 의혹이 터지면서 댓글에 "어째 그렇게 생겼더라" "못생김" 이라는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말이다. 실력파 보컬 유튜버가 라이브인거 인증하면 나오는 얘기가 "근데 얼굴이 안 됨"이니까 말이다.

악플러들이 잘못된 미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악플은 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학폭이 칭찬받을 짓은 아니지만 왜 외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착한 사람 꼬투리 잡고 흠집 하나 있다고 "어째 인성이 똥이네" 라고 하는 잘못된 내면의 미를 이용하는 댓글도 없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책에 나왔던 사기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반 친구가 한 명이라도 거울여신에게 나만의 아름다움은 다르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잘못된 정형화된 아름다움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잘못된 미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과연 나라면 용기를 내어 거울여신에게 나만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발레를 좋아하고 잘한다. 그러나 키가 크고 팔다리는 길지만, 흔히 아는 발레리나처럼 깡마른 외모는 아니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말한다. "소혜는 크면 쌍꺼풀 수술 해야겠네" 그러나 난 착하고 순수한 내 눈을 사랑한다.

이 책을 읽고 우리는 잘못된 미, 정형화된 미를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다른 외모,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나만의 개성, 모습, 나다움을 더욱 더 사랑해야겠다.

감사합니다